

대한신경과의사회 제10대 회장 임후보자 공통 질의 답변서

2019년 10월13일(일)에 실시되는 제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공동 선거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임후보자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2019년 9월25일

대한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근 호

- 다 음 -

[기호 2번 이은아 후보]

[질문 1] 금번 제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답변)

존경하는 신경과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제 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은아입니다

저는 2002년 대한신경과 개원의협의회 홍보간사로 시작하여, 지난 17년 동안 신경과의사회가 개원의협의회로부터 시작하여 봉직의와 개원의를 함께 아우르는 신경과의사회로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 해 왔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 신경과의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년전, 제가 9대 신경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문케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케어는 의료계의 근간을 뒤바꾸는 의료변혁이었습니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에 옮겨졌고, 특진비가 없어지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졌고, 치매국가 책임제의 일환인 치매 안심센터는 276개 전국 보건소에 설치되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구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의사협회 및 타 영역 의료종사자들 협회들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갈등과 투쟁구도를 이용하여, 의사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가 창궐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의 한방전문의 가산 시도, 간호사 단독법등)

문케어는 마치 쓰나미처럼 의료계를 강타하였고, 저는 그 쓰나미 앞에서 신경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마치 탁구공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이 지난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제 임기가 끝나가게 되고, 사실 저는 임기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회원 분들께서 힘을 많이 합쳐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큰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신경과 의사회 회장을 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연임을 하여 이 난국에 신경과의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신경과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잘 끝내고 혹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돌아오는 길 조차, 신경과를 위해 무엇인가를 잘 해냈다는 뿌듯한 기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10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아직 문케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문케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다져놓은 정부, 의협, 학회 및 타과 의사회 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신경과의사회 회장의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질문 2] 현재 신경과의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신경과 의사는 doctor of doctors 입니다. 이 말은 신경과 진료가 그 만큼 복잡하고 섬세한 고난이 전문 지식과 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의료현실은 신경과 의사가 doctor of doctors 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신경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조성되는 일입니다. 즉 신경과 의사의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경과의료행위 수가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된 신경과 진료행위가 새로운 수가로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과 의사는 봉직 뿐만 아니라 개원을 하기도 비전이 있는 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신경과의 신규 환자 창출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국가 정책으로 인해 치매환자는 국가기관으로 쏠리고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신경과 병,의원보다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국가 정책은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신경과 병,의원의 신규 환자 창출을 위해서 전담팀을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신경과의 새로운 진료영역 개발입니다. 신경과 질환은 단일 질환보다는 복합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에는 미처 복합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술기를 배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의사회가 실용적인 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차 의료현장에서 실전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진료영역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3]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끄럽지만 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직의와 개원의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3차 병원에서 전임의를 2년 반 동안 마친 후 봉직의 6년, 개원의 11년의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산전수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과 의사회 회원분들의 고민과 요구사항들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정책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합니다.

저는 2002년 의사협회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을 3기로 수료하면서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06년 서울시 25개구에 치매지원센터 만드는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07년에는 서울시 보건정책과장 후보로 최종 결선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치매특별등급 신설등 다양한 의료정책분야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등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을 잘 합니다.

저는 4대 신경계 질환에서 SSRI 계 항우울제 60일 사용제한을 철폐하는데, 차기 신경과 학회 이사장 홍승봉 교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으며, 복지부와 정신과의 최종 협상에도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병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였고, 불면과 우울에 대한 인지행동치료(CBT) 급여화 할 때 신경과 수가를 신설하는데 중요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재분류 작업에서 단순신경학적 검사 수가를 높이고 외래에서 주 1회 인정 받는 것을 협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4. 의협 및 학회, 타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타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난 해 요양병원의 한방전문의 가산제 시도에 대한 대처도, 16개 학회와 의사회가 함께 모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을 잘 못 먹습니다

: 회장이라는 역할은 때로는 일의 성사나 교류를 위해 타과 혹은 타 단체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해서 항상 그런 교류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 일을 할 때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 약간 일 중독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과 의사회와 학회 일을 할 때에는 맡은 일이 잘 끝날 때까지 몰입을 하게 되어 가정 일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다 성장하여 이제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대한신경과의사회를 위한 공약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답변)

제가 10대 신경과 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수행할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신경과 의료행위들의 수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관계자들에게, 신경과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진료의 섬세함을 피력하고, 수가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학회와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2. 문케어의 다양한 의료정책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신설 급여화되는 수가 결정에서 신경과의 진료행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Spine MRI 급여화에 따른 판독료,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 치매가족상담료 등
3. 신경과 의사회의 보험위원회를 전담 팀으로 강화하여, 보험 급여기준 및 심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새로 변화된 분석심사 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회원 분들에게서 부당한 삭감이나 심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에 대한 문제점을 의협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공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신경과 진료에서 새로운 진료 영역들을 발굴하고 보급하는데 전담팀을 만들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과 진료에서 근골격, 신경초음파 활성화 및 통증 진료능력 강화

: 치매의 인지중재치료 보급화 및 홍보

: 신경과 진료에서 수면다원검사 및 판독, 진료능력 강화

: 우울, 수면에서의 인지행동치료 (CBT) 보급

: 신경과 재활, 작업치료 order권 확보를 위해 학회와 긴밀한 공조
6. 신경과 개원을 돕고 신규환자 창출을 위해 개원 지원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 회원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전담팀을 만들고, 의협의 의료중재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질의 (1~2개 정도)

오동호 후보자님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는 제 10대 신경과의사회 회장 임기중인 2020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동호 후보자님이 차기 신경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신다면, 서울시의사회 회장 출마는
하시지 않고, 신경과의사회만을 위하여 10대 회장 임기(2020년 3월 ~2022년 2월)를 완수하실
계획이신지요?